**설정 - 신들간의 분쟁**

자신이 창조주라고 주장하는 존재(아디오스)의 힘을 얻어 인간들에게 에니아리오스의 복수를 하려는 아트로포스는 다른 신들에게 인간이 아닌 신이 세상의 주체가 될 수 있다며 함께 인간들을 지배하자고 제안한다. 이에 동조하는 많은 신들이 아트로포스와 함께 연합을 맺고 더는 인간들을 관장하고 보살펴주는 것이 아닌, 지배하고 신들이 세상의 주체가 될 계획을 실행하려 한다.

이에 신들의 사명은 인간들을 지배하고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닌, 부족하고 모자란 인가늘을 보살펴주고, 관장하여 세상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라며 인간들을 관장해야 할 존재인 신이 신의 사명을 깨고, 인간들을 멋대로 지배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세상의 질서가 무너질 것이라는 라케시스를 필두로 아트로포스의 계획에 반대하는 신들이 모여 아트로포스와 그에 동조하는 신들로부터 인간들을 지켜내,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으려 한다.